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과 좌와 었거늘 너희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
은자 가운데서 부활이
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11

記念禮拜의 安息

부활주(復活主)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신 후三日만에 사망(死亡)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기독교회에서는 예수와 한성하신 그리스도여쓰 보다 더욱 중하게 생각하는 날이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일주간(一週間)의 마조막날인 토요일(土)을 안식일(安息日)로 지켜 쉬는 날로 정하였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신후로는 일요일(日曜日)을 쉬는 날로 변명하였다.

일요일에 人間을 이 에 基督敎會가 神의 名(神名)에 告別을 아나니 人間을 告別한 日(日)은 주일이야 한다.

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하였으니 즉 主의 날이라는 뜻)이라 부르면서 토요일에 안식하도록 주의 부활하신날에 안식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주일이야 한다.

왜냐 때문에 부활주는 언제나 주일이야 한다.

매년 부활주일은 춘분(春分)

스탠리 — 존 丛博士

저나 줄은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라고 하겠다. 아날
이야말로 인간세계에 달려드
렀던 가장 무서운 공세(攻勢)
가 패복되고, 우리를 승리애
이끌날이다.

죄악과 사상의 권세가 인간
을 정복하여왔다가 『생명』의
반격으로 승리를 가져온 날이다
따라서 이 사실의 귀결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지 죄악
과 사망에 대결하여 승리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함께 부활하
는 것이다.

세상은 바야흐로 십자군의
교란을 당하고있다. 세계를 사
상하는 자의 기도는 그리스
도와 함께함으로 세계의 부활
을 경험할것이다. 그것이 실현
되는 때에는 십자군은 우의미
하지 않을것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초대교
회 신도들과 가차『주제서 부
활하셨다』하는 말에 대하여
『주제서는 참으로 부활하셨도
다』할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패복되이 맞이하도록 하자.

受難劇으로 理解

恥辱과勝利의基督

세계각국에서 근년(近年)에
예수의 부활주일 전 고린
(苦難節)에 대한 인식들이
어지고 있는대 기독교의 지
자들은 어떻게 할가 그리스도
정신을 철저히 할가 하여
극기주간을 정하고 최고
의 음악과 성악으로 그 정신
을 생활과 예배에 침투 시키
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난극(受難劇)
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도울가 때로는 설교에
못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然

復活節短想

달	모식	다음으로	심히	신한	세월을	대양을
되는	(朔望) 望日	유래를	바르지않을가	일요일 (日) 을	중심한	소위
노동자나	노동자나	생각하여보면	생각된다	첫째로	광명은	
업전날	업전날	조	연구하면	이런	우	
우리나라에	말할것도	없어	『主日』 이라는	『主日』 이라는	『主日』 이라는	표현할때
그리스도의	말은	부운이	말을	말을	말을	

復活節의 敎訓

고난이 있으면 슬기가 오
고 심자가 후에는 부활이
온다.

저주와 악욕의 무덤에서
주 예수는 일어나셨다. 악당의
세력이 한때 승한듯하며 의
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몰아
죄인을 삼고 심자가에 못을
박고 마침내 무덤에 잠사하
였다.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을
마침내 놀라운 부활의 영광
이 있고 따라서 사망의 그
늘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희망을
주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
시고 『땅 위의 온 인류가 이
날을 기념하며 찬송과 지극
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게 될것이다.』

2

인간은 다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주를 받아서
생명과 생명의 길을 얻지 못
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무
덤장은 암흑과 고통의 생을
살고 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갑나고 악하다. 부한은 빈하
나. 어리석거나 지혜있으나
약소민족이나 부강한 민족이
나. 자유 국민이나 전제주

3

그러나 부활이 오기전에 십자가가 있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수의 부활은 그 십자가의 댓가로 온 면류관이 있나니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것이다. 예수의십자가를 물소 내몸에 부달하드로서만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을것이다. 그럼대 우리는 교생도 없이 회생도

는 사물이 개성된 피의 역
사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십자
가가 없고 피가 없었더라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오늘의 기독교가 있을 수 없
는 것이다.

4 이 엄숙한 이 원리는 우
리 사회생활이나 민족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대개 세
사회를 만들고 세나라를 세
우는 데 있어서도 그 사회 그
나라의 일원되는 자들이 양과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는
일이 없이는 결코 사회
가 민족에게 영광의 날이오

생이나 회생은 자기기가 아무고
우리에겐 자기기가 아무고
심자가 곧 불탄 것이 없으니 자유
와 평화의 행복과 영광스러운
운 지위는 자라다 저만 누
릴라는 사명을 해다. 무슨것을
해서든지 - 어떠한 일 위험한
자리에 는 빠지고 저마다 온
생기는 일 안전할 자라만
찾을려고 한다. 이때 그사회
그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랴
전심으로 경건한 일이다.

5

그러나 우리들이 다 저마
다 교회로 나가서 다라들
위하여 신의 사랑을 받음만
위하여 신의 사랑을 받음만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 거울이 아무리 차
고 매우 그 세력이 강할지
라도 본은 오묘야 말 것이오
받은 아무리 지리하고 답답
해도 마침내 광명한 아침은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 현실
이 아무리 번혹하고 광광한
듯 할지라도 이 광명세계
가 올 것이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한동안 뻗달 자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최후의 승
리를 가져 줄 것이다. 다만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기
를 사양치 말아야 할 것이다.

노는 노이. 들을 교우하는 것
노도 사 일하고 중심하며 그리스도
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바
다른 이유와 수
없다 한다.

공개 二年前에 백역이 결정
되되고 피차 그 역할을 격려하
는 때 그 백역중 그리스도와
그 역할을 가졌다. 사람은 五
년이상 수업을 위
수업을 가르친다. 이 성경을 위
음악학교가 있고 어학연
수반들이 있는 때 은 부락민
기독교적 형동정신으로 생활
되어 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이 第一次 세계
英 國과 아메리카에도
나타. 一九六년에

그리스찬. 싸이엠티. 모니다
 被에. 보도원바크. 의 하연. 하곤
 禮士바나노州州크. 회. 풀이쓰에
 시 四日間. 개회되었던. 갈리코
 의. 정도부. 연회에서. 아푸리카
 유. 류유원인. 라들. 로치牧師는
 朝鮮. 위성국내의. 교회들은. 예
 배를. 개속하고. 신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지. 다
 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풀이. 란드와. 같은. 나라를. 파는
 도저히. 연락이. 아니되나. 감
 리교신학교는. 지금도. 계속되
 고. 있는데. 금년에는도. 소수의
 신학생들이. 졸업. 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회도

[illegible]

衛星國內の監理教

경사다요.....



때에 년을
웃게 자녀
한 때 당하

宣敎地에對한研究必要

宣敎師와敎役者의協力도

日本傳道問題座談片模

일본은 선교百週年(선교)을 기념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연구의 내용은 선교의 역사, 선교의 방법, 선교의 결과, 선교의 문제 등이다. 이 연구는 선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言語風俗에能通하고

聖靈과品性에好評이期待

선교는 언어와 풍속에 능통하고, 성령과 품성에 호평이 기대된다. 선교는 언어와 풍속에 능통하고, 성령과 품성에 호평이 기대된다. 선교는 언어와 풍속에 능통하고, 성령과 품성에 호평이 기대된다.

宗敎迫害非難決議

아메리카 선교회의 결의

아메리카 선교회는 종교迫害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아메리카 선교회는 종교迫害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아메리카 선교회는 종교迫害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종달새

小雲

종달새는 하늘을 날고 있다. 종달새는 하늘을 날고 있다. 종달새는 하늘을 날고 있다.

에베소

新約講解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復活의福音

고린도전서十五장 1-9

다섯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의 신자가 예수...

宣敎師事業에

새로운理解를期함

선교사들은 새로운 이해를 기대한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이해를 기대한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이해를 기대한다.

宗敎迫害非難決議

아메리카 선교회의 결의

아메리카 선교회는 종교迫害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아메리카 선교회는 종교迫害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아메리카 선교회는 종교迫害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종달새

小雲

종달새는 하늘을 날고 있다. 종달새는 하늘을 날고 있다. 종달새는 하늘을 날고 있다.

에베소

新約講解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求道者

에베소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중요한 서신이다.

張利郁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일간으로서는 같은人間에 계셔도 널리 알리지고 또 존경으로서 대접을 받고자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人情이요 또 인류사회를 발전 시키는 데 있어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한민족이나 한국가에 있어서 그것을 구상한 분자의 많지 않은 빈 이를만 살펴서 같이 구하는 부처한 영웅심을 가지고 첫배를 불러리라는 사람을 이라면 그 사회와 그 국가는 근본적으로 위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자성과 자기검토가 필요하고 다고 느끼는것이이다. 특히 이조 중업(李朝中葉) 이래로 우리만 족생각의 각 부류에 있어서 내용과 정신과 실질을 강조하는 대신 형식과 허례와 과장과 부화한 이들을 따르는 경향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내 중학시절을 지금 회억해볼 지라도 그때 집을 떠나 외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끔 집안 어른들께로부터 오는 편지를 볼 때면 거기에는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문을 빛내리라 하는 문구가 써여있었던 것이다 또 해외에서 나아가 있는 선배어른들과	친구들도 종종 서신을 부쳐왔는데 어서속히 금의환향하기를 기다려라든 말이지 않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이렇게 가문을 빛내라 혹은 금의로 돌아오라 하는 부락파 명필을 받는 청년학도의 마음속에는 그 전쟁에 대하여 어떠한 그림을 그려보리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 학도도 하느님 다른 어느분과의 공부보다도 성치나 업을 좀 더 많이 지망하도록 만들었는데 일부현인이 되었고 다 그렇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은 이 조를 애 와서 우리가 후손이 쓰는 표현으로서 봉사 하자는 사람이란 단지도 무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잖는 것을 생각하자	은대신 골동품사람 유점하사람 같은 벼슬아치는 사람들을 우조종으로 불렀다 하고 동맹하게끔 되었다고 수있다. 그러면 일반사회적 환경은 어떠한가 왔는가 그것은 온 인간관계의 모든 표현과 행사가 역시 그 정신과 본의를 잊어버렸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여버리고 오직 공승의 피도 판다니는 것과도 같은 암흑의 세계의 더욱 한 관성이 짙어져 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기때문엔 절제하는 삼단동안 매일세끼 (아유 아유) 하는 곡성을 부르며서 등디사람들이 들도록
--	--	--	--	---

教會學校
教師講座

教授法
童話○

斗方法

이상 생각한것으로 우리는
연극화(演劇化)시키는 일이
바로 단정(丹精)한 수속을
요구하면 된다. 단순한 형
식을 취할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형
태의 치밀함과 단순함에 상
관이 좌우한 연극화방법이
없다. 학습경험(學習經驗)이
대단한 학습경험(學習經驗)이
된다는것도 알 수 되었다
이렇게할 때 학생들은 예
외의 시대와 풍속을 잘 알게
되며 각 사건에 내포되어 있
는 중요한 종교적 의미와
적극하는것이다. 그들은 다
수단으로는 담당할수 없
는것이이다. 연극화는 보통
배에 띄게도 하여 종교 유별한
교회 명절에 은 교회 앞에서
부(部)의 몫으로 출연하여도
된다.

연극화의 양식

(1) 연극 인물이 있어 말과
동작을 함께 하는것이다. 여러
양식중 이것이 제일 하

讀書案内

그들은 육체의 따르는 성실의 승용이요 있거나 없거나 하는 소리만은 삼년동안 틀러야 하는 것이었다. 만일 문없는 간단한 선택과련 제사를 쓰더라도 조상의 제사를 내지 내며야 효자가 되는 것이다 그 부오생전에야 어떻게 대접하였든지는 문제도 아니 되는 정도였다 또 편지를 쓰는 경우도 생각하고 보자 이것은 반드시 그 편지를 쓰는 단절의 서중결을 판박하였는 문자로도 좋고 옳고 한 다음 氣休候一向萬康 伏蘇區無任下服之至 等を 기다라하게 벌려놓고 사설설지로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는 어느구석에 써여있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로서 대체로 그 전부가 형식적 또는 파장적 일

이 책은 쓴 宮內務사는 한 국에도 알려진 복희자며 학자인데 교회적 저술 나은 사람들을 위하도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 관한 쉬운 해설을 하였을 것이다.

내용은 대략 형식으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주리하며 교회생활에 있어서는 교회원다운 모습에 필요한 문예와 예배의 정진을 비롯하여 집회와 세례성찬 등의 성례전의 의의와 설교하고 교회제도의 문제와

自己形成の爲に

그러나 이 책은 일반의 성품을 개량한
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모으는
것인 데 인간은 천천히 정성
하기 위하여는 도덕적 기반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정
신성 건전성에는 능동적 요소
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젊은이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감명 깊은 해설한 친절
성이 기뻐요직으로 다시 볼 필
요가 있어 보인다.

【泰光堂發行 一六〇圓】

小說
새벽
종
(四)

田林澤作

『유호야 유호야 언젠가 너도 좋은 사람이 될거라』
나는 좋아하게 되었다.
자신을 잘 알았을 대석이
유호와 귀의 목소리를 듣고서
『교양이 우리 두 사람으로 나뉘었다』
『그대!』
두 아이는 가만히 있을 줄 모르고
밖으로 나왔다. 나가서 미끄러운
판자로 올라갔다. 유호는 대석
아이를 꼭 안고 호칭이나 한
말 없이 대석을 재촉하여 앞
길을 갔다.

『나쁜 노년대의 열매였다』
리아버지는 먼저 죽고 나는
어느새 괴뢰군 장부대가 되
려와서 기관총을 막 쏴대는
중의 것도 모르듯하고 다리
밑에 가면 이념들이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이 선회
하니 산이 무지기는 소리가
은 요란한 소리의 쿵과 딱
딱하로는 정신을 못 차렸다.
나중에 알고보니 철표마린들
죽여서 생긴 것이었다.

어떤이의 울음 소리도
비축성부로 나왔는데 거기
작간 하면서 집을 다시 잘
질라고 하고 있는데 모두 수
수근하는 말이 비괴관이 벌
하도록을 던졌다고 하거든
그래서 마땅히 갈려고 하는데
마침 되는 내리고 갑갑한 돌
을 밟았다를 가로고 하는 데
환자가 어디에서 물이 번져다니니
라 그러더니 무슨 산이니
이지는것같은 소리에 카카
하지는 것 같지 않아? 그리하구
나는 그만 정신을 잃었다.
피해 사정을 처리하기까
는 추청서에 서주 한참 가서
나무수레이속의 벽에있었다.
현상적인 것을 살았으니 어
살았더라 눈에서 맑 피가
드니 이 령되되었다.
알고보니 남강철회를 취한다
배트런가 한다. 그 때그만 배
죽었다 나는 금방 국궁이라
마산예했다 내일적 생각까지
차탈 듯 싶었다.]

『술처럼 나오네』 동생이
했구나 산악 대석이 유호
보조 이렇게 말하는게 분달
웃으면서 두 아이들을 의전할진

淺見仙作著
矢內原忠雄序

小十字架

八十路翁の信仰と聖地受難記

定價 七十圓
送料 十六圓

待農堂書店

東京杉並西萩窪一ノ二〇六
振替 東京 九五八二七

L・E・マックスウエル著
 車田 秋次 校閱
 信仰生活に於ける十字架
 定價 二七〇圓 送料 十四圓
 新約社
 東京豊島區高田本町二ノ一四九五
 振替 東京 一五四六二五

學生募集
願書受付中
共立女子神學校
校長 M・L・アーノルド
▽詳細 橫濱市中區山手町二二二
當校に問議하시오

日本聖書神學校

夜間授業 呈正規神學課程 會完修 學年 以音

願書 三月末日迄

試驗 四月六・七日

校長 金井爲一郎

東京都新宿區下落合一ノ五〇〇

大阪基督教短期大學
神學科
一般傳道者養成
超教派書間・夜間男女共學
願書締切三月末日
大阪市阿倍野區丸山道

在日僑胞傳道에 青年群厥起
基督者의 使命과 立場을 討議

사제자(司祭者) 음법 수양회는 세계적
안 위기와 조국의 실정에 비
추어 그리스도청년의 입장을
선명히 하고 제일 七十萬교포
교회와 사역을 책임지고있는

본국의 「한글신문」을 「한글新報」(한글신보)으로 하기로
 理事會에서決議하였다.

이웃노의 福音이 豐收하고 자
평和의 國民生活를 하기
세 세계의 原理인 民

實지되어 받지부터 앎을뿐 아니라
 실聖道를 新聞名에 사물한
 황송한 생각이 있으며

화애 파감한 반격으로 도를
혀 침투하는 세력이 되기를
바라 현력을 약속한다。

연년간 연구하고 성경학교
성경학립과 운영독립에 노력하기
하는바 성경한교의 창설초기
문제 많은 일도 이로써